

2014년 제 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업과 농촌활성화

도시와 농촌, 같이하는 매력

-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삶을 말한다 -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1판 1쇄 2014년 11월 21일
발행인	박재승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전화	02-2031-2163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김지현]
E-mail	roots@makehope.org
Web	www.makehope.org blog.makehope.org/cb
편집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번역·감수	안신숙(일본희망제작소) 김민주 김민주 이진희

표지 디자인 안영삼

2014년 제 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업과 농촌활성화

프로그램 소개



2014년 제 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도시와 농촌, 같이하는 매력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삶을 말한다

포럼 개요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13:00~18:00

장 소 서울시 청년허브 다목적홀 ‘활력’ 등

주 제 한국과 일본의 도농교류를 주제로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교류 및 상호 학습

대 상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공무원, 시민단체, 연구기관, 시민, 학생 등

프로그램

12:30	등록 및 입장	
13:00	개회 인사	인사말 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 서민정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13:20	강연 / 사례발표 (동시통역)	새로운 농촌귀촌, 도시적 삶과 농의 결합 - 반농반X라는 삶의 방식 시오미 나오키(塩見直紀) 반농반X연구소 대표 농업관련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 대지를 지키는 모임 후지타 카즈요시(藤田和芳) 대지를 지키는 모임 대표 농가와 도시민을 잇는 농가시장 - Earthday Market 토미야마 히로시(富山普) Earth Day market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도시와 농업의 즐거운 관계를 지향하며 - 도쿄 네리마구 시라이시 농원 시라이시 요시타카(白石好孝) NPO법인 발의교실 대표 사람과 농업을 잇는 회사 - 마이팜 타니 노리오(谷則男) 마이팜 부대표
15:00	휴식	
15:10	오픈토크 (순차통역)	한 일 도농교류 활동가들의 경험과 고민 나눔 그룹 1. : 도시농업 진행 : 자전거 문화살롱 한국사례 : 씨앗들협동조합, 우보농장, 농락 일본패널 : 시라이시 요시타카 그룹 2. : 도-농, 얼굴있는 유통 한국사례 : 마르쉐, 농사펀드 기획단, 씬지농부 등 일본패널 : 후지타 카즈요시, 토미야마 히로시 그룹 3. : 귀농 귀촌 베이스캠프 한국사례 : 동강 청년공판장, 청송 창조지역사업단, 홍성 청년진로농업창업 플랫폼‘온’ 등 일본패널 : 타니 노리오, 시오미 나오키
17:00	네트워크 파티	월드카페 : 오픈토크에서 나눔 이야기 공유와 친교의 자리

인사말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현 희망제작소 소장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

전 한겨레신문 경영기획실 실장

정당팀장, 법조팀장

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정책실 간사

전 도서출판 두레 편집장

전 도서출판 이삭 편집장

희망제작소가 2014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 포럼을 서울시청년허브, '삼선배움과나눔재단'과 협력하여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단위의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지적, 문화적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일본국제교류기금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 포럼을 처음 시작한 이후, 우리는 지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해서 한·일 양국의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2008년도 첫 포럼은 커뮤니티비즈니스(CB)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등을 이해하고 모범 사례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 모두 5회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면서 “지역활성화 전략”, “문화적 자원 활용과 인재 육성”, “적정기술을 통한 에너지자립 방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내걸고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업, 농촌의 활성화”입니다. 한·일 양국 모두 그동안 도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특히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두 나라 모두 농촌과 농업, 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희망제작소는 물론, 한국의 중앙정부, 언론에서도 농산물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사람들, 농촌에서 대안적인 삶과 철학을 가꾸며 주민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도시에서 농업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과 모델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포럼이 일본의 모범적인 도농교류 사례들을 공유하고, 국내의 여러 도농교류 추진 단체와 농정 담당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풀어놓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관점으로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해 구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멀리서 찾아오신 일본의 강사들과 관계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포럼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적 자산과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윤 석 인

인사말



고지마 히로유키
(小島寛之)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소장

2012년 10월~

서울문화센터 소장

2006년 3월 ~ 2010년 8월

북경일본문화센터 부소장

1996년 4월 ~ 2000년 8월

마닐라 사무소 부소장

1992년 4월

국제교류기금 이사

1992년 3월

교토대학 문학부 졸업

제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신 희망제작소와 청년허브, 삼선배움과 나눔재단 등 협력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환경문제, 지역격차, 청년실업문제 등 한일간에 공통된 사회문제를 주제로 양국의 관계자가 함께 시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최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의 주제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농촌의 활성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도시의 인구집중과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농촌·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에 매력을 느끼고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며 환경문제나 식생활의 안전, 토지의 활용, 유통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농촌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섹터의 역할도 큼니다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는 커뮤니티비즈니스나 사회적기업에의 기대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시민섹터에서 농업·농촌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분들께서 다양한 사례를 한국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 분들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며, 양국의 미래에 큰 의의를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 서로에게 건설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져 양국 관계자 여러분의 네트워크와 상호 신뢰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은 기원합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고지마 히로유키

2014년 제 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농업과 농촌활성화

도시와 농촌, 같이하는 매력

-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삶을 말한다 -

자료 차례

1. 새로운 농촌귀촌, 도시적 삶과 농의 결합 - 반농반X라는 삶의 방식	11
- 시오미 나오키 반농반X연구소 대표	
2. 농업관련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 대지를 지키는 모임	27
- 후지타 카즈요시 대지를 지키는 모임 대표	
3. 농가와 도시민을 잇는 농가시장 - Earthday Market	41
- 토미야마 히로시 Earth Day market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4. 도시와 농업의 즐거운 관계를 지향하며 - 도쿄 네리마구 시라이시 농원	55
- 시라이시 요시타카 NPO법인 밭의 교실 대표	
5. 사람과 농업을 잇는 회사 - 마이팜	87
- 타니 노리오 마이팜 부대표	
6. [오픈토크] 국내 도농교류 단체 소개 자료	93

새로운 귀농귀촌,
도시적 삶과 농업의 결합,

‘반농반X(半農半X)’ 라는 삶의 방식



시오미 나오키
(塩見直紀)

반농반X연구소 대표

‘반농반X’는 “농사를 조금 짓고, 나머지 반은 화가도 좋고 교사도 좋다.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농(農)’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2000년 <반농반X 연구소> 설립. NPO법인 사토야마네트·아야베(里山ネット・綾部)의 스텝으로 시골 생활 투어, 농가 민박, 아야베 사토야마 교류 대학, 홍보 등을 기획·코디네이트하고 있음. 또한 ‘총무성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음

1994년 고향 아야베시로 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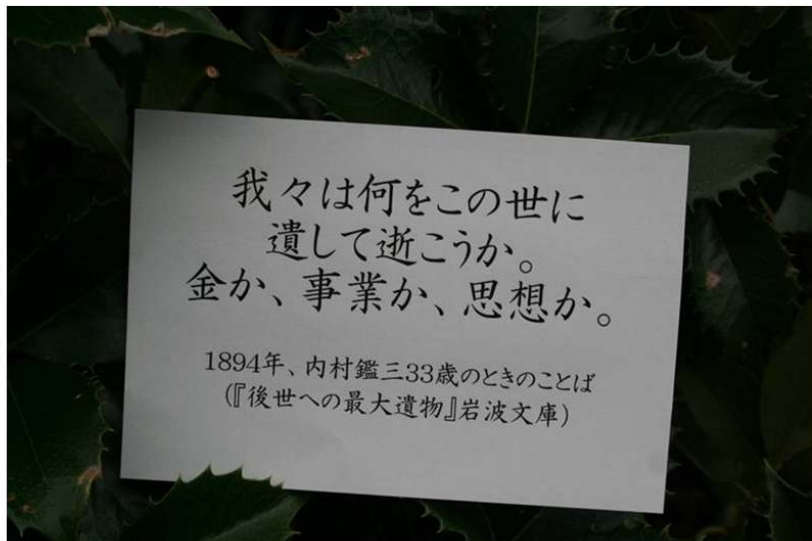
<저서 · 공저>

『반농반X라는 삶의 방식』

『반농반X라는 디자인북』 등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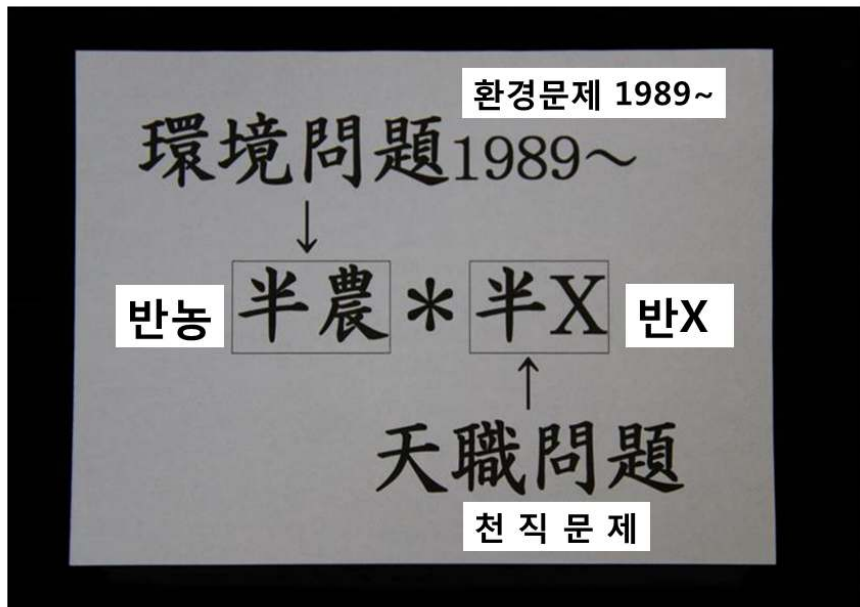
반농반X의 삶의 방식

도시와 농촌이 이어지다
나와 사회가 이어지다
내 몸과 마음이 이어지다
나와 과거 · 미래가 이어진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일까? 사업일까? 사상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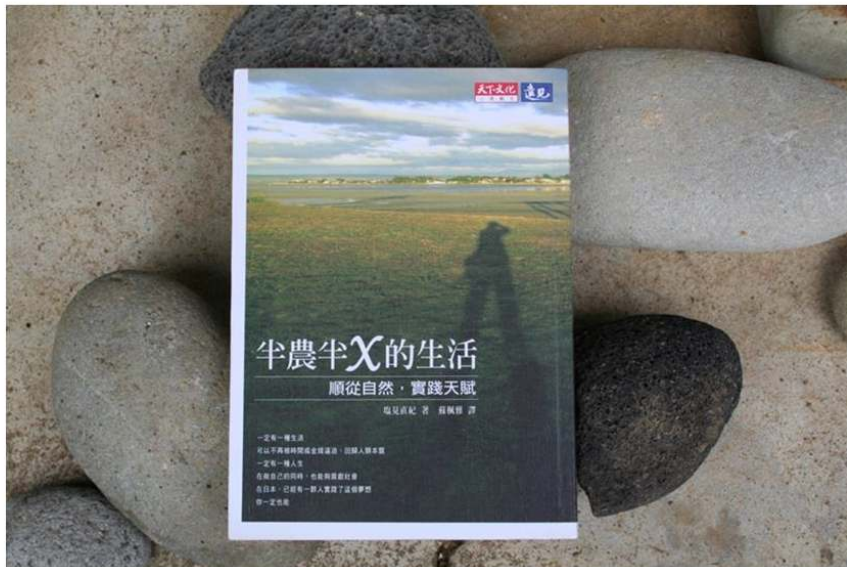
1894년 우치무라 간조가 33세에 남긴 말
([후세에의 최대 유물] 이와나미문고)



반농반X라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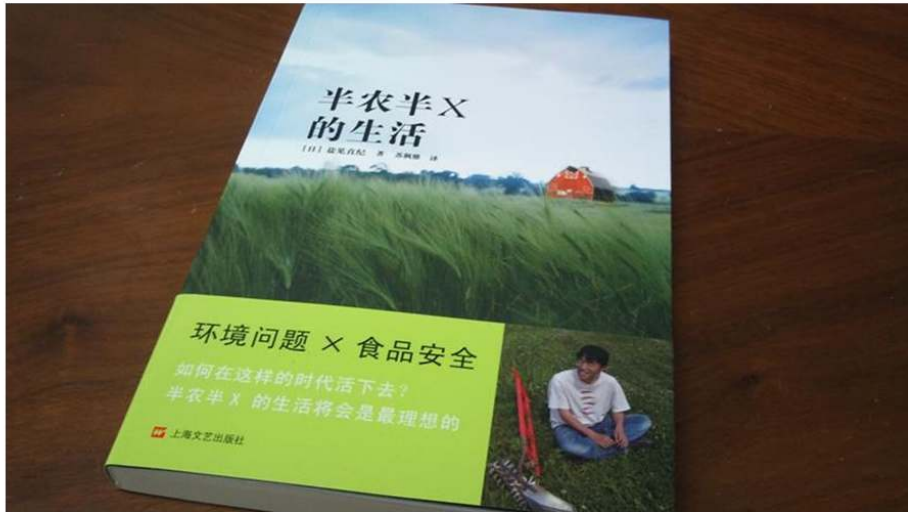
좋아하는 것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

2014년 제 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도시와 농촌, 같이하는 매력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삶을 말한다



반농반X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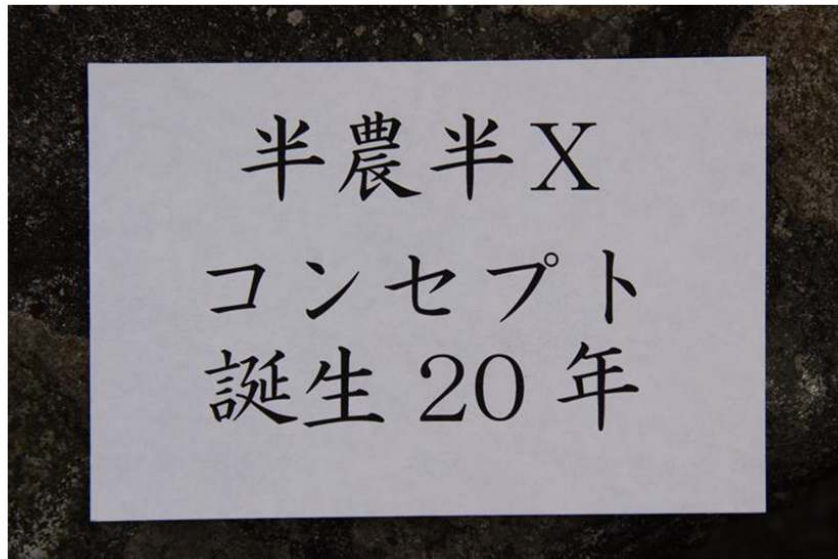
반농반X적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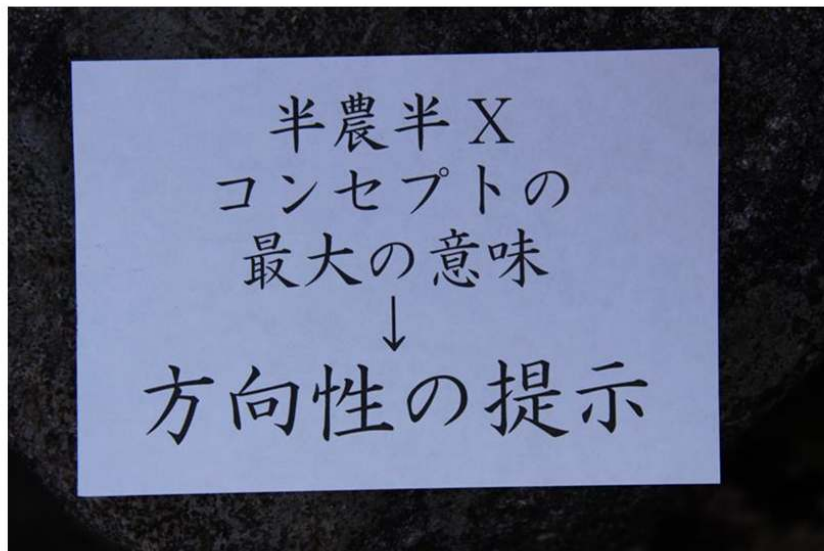




인 생 탐 구 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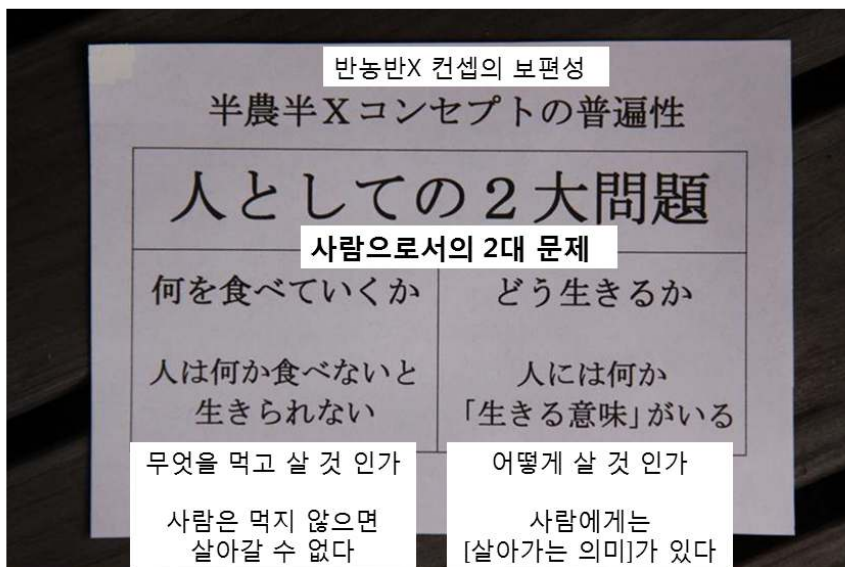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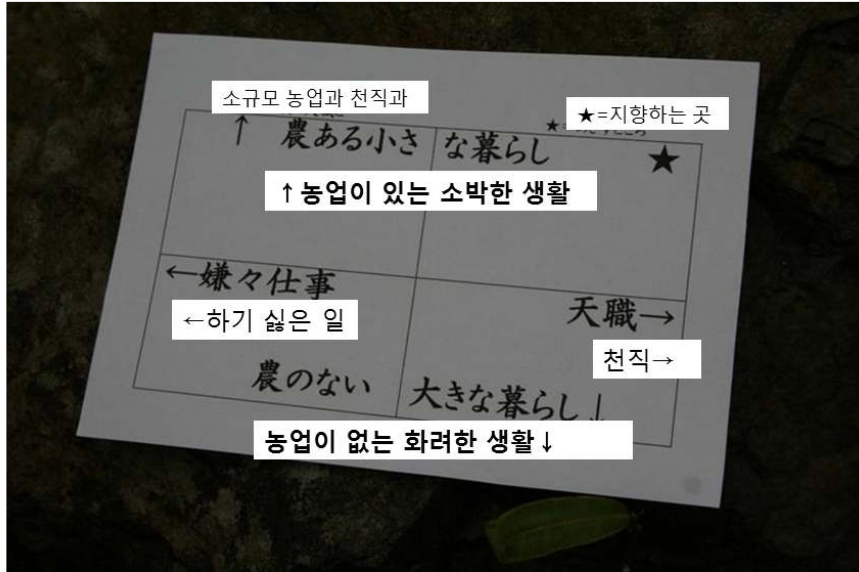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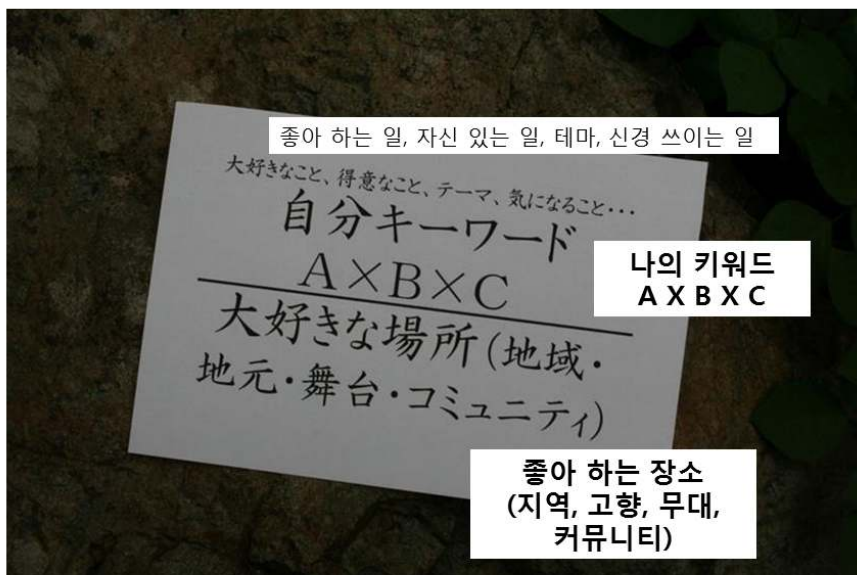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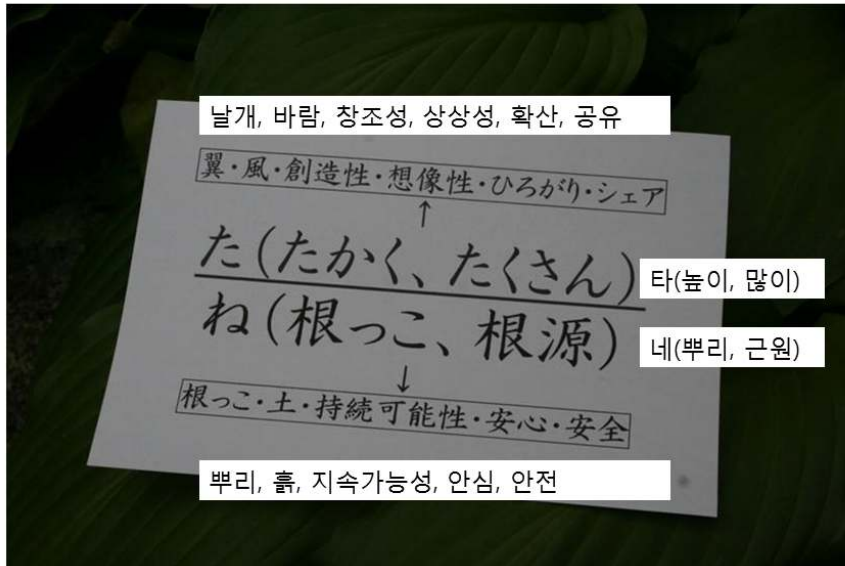
반농반 X 컨셉 탄생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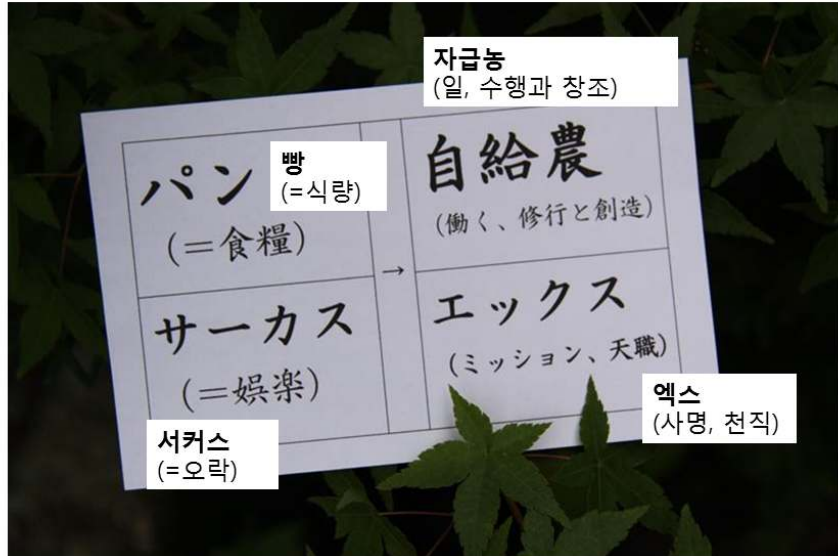


반농반 X 컨셉 최대의 의미

↓
방향성의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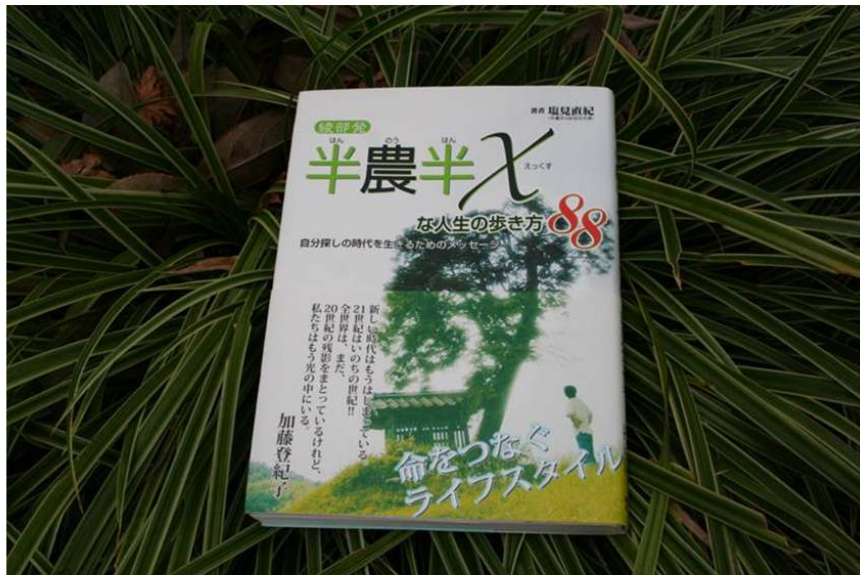






반농반X의 씨앗을 뿌리다

사회적기업가라는 직업



반농반X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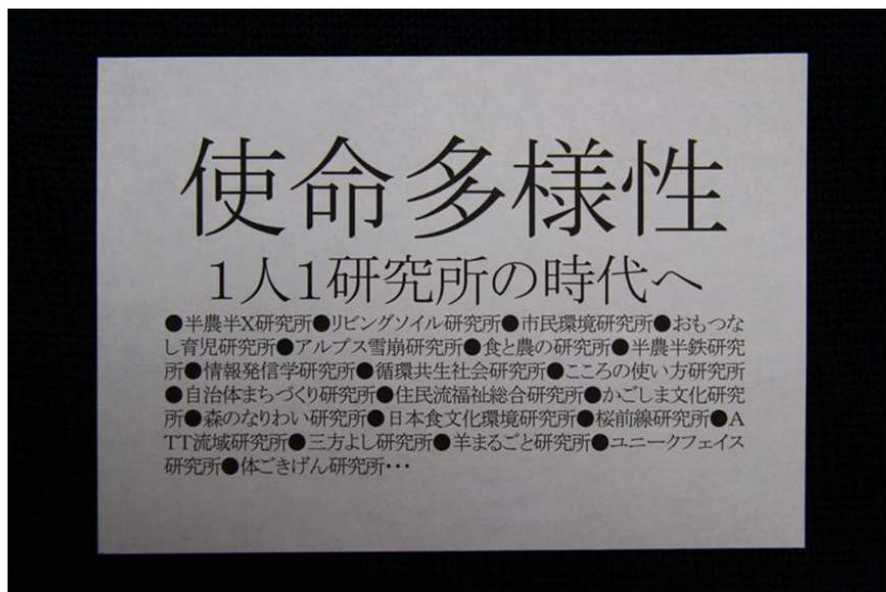


2014년 제 6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도시와 농촌, 같이하는 매력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삶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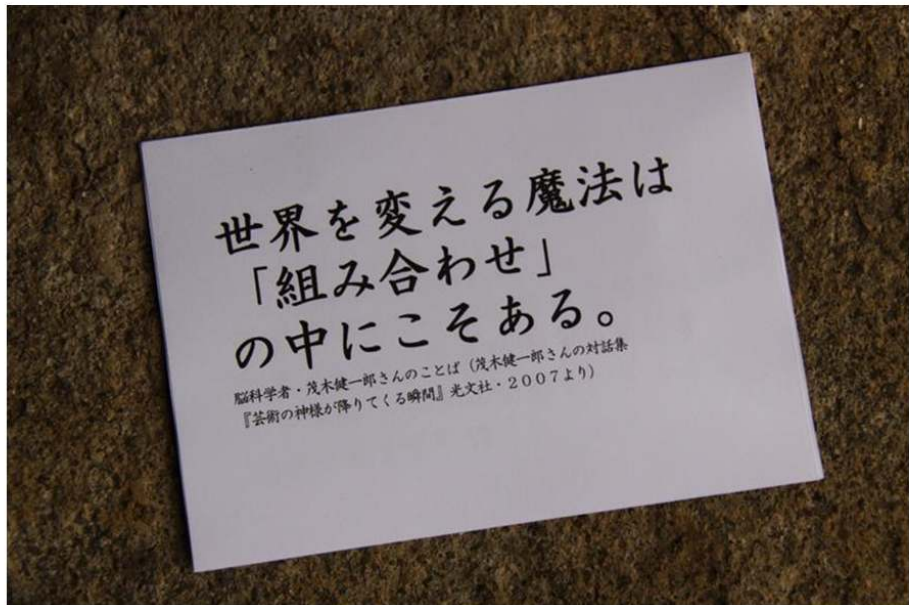


야초의 힘을 살려서



사명의 다양성 - 1인1연구소의 시대로

*반농반X 연구소 *리빙소일 연구소 *시민 환경 연구소 *기저귀가 없는 육아 연구소 *알프스 눈사태 연구소 *먹거리와 농업 연구소 *반농반철 연구소 *정보발신 학연구소 *순환공생사회 연구소 *마음쓰는법 연구소 *지자체 마을만들기 연구소 *주민류의 복지 종합 연구소 *가고시마 문화 연구소 *숲 경작 연구소 ...



세상을 바꾸는 마법은 [조합] 속에 반드시 있다

반농반X의 삶: 소규모의 농업과 전직과 사랑하는 마을과
반농반X 연구소 시모미 나오키 (교토아이베)
http://www.townence.jp/xseed/ xseed@maia.eonet.ne.jp

●반농반X...지속가능한 농업이 있는 소박한 생활을 베이스로 하면서, 전부의 재능을 사회 활동에 살리는 삶과 생활 방식

A 소규모 농업과 전직과 (영향) ★ = 지칭하는 바

1 농업이 있는	소박한 생활 ★
←하기 싫은 일	전직→
복합이 있는	회복한생활!

X란=나와 사회의 크로스 융합, 인류, 사회성, 관계성의 회복

B 반농반X 전년의 보편성: 인간의 2대 문제

*먹거리(사람은 뭔가 먹지 않으면 살아가 수 없다) ←팽

*삶의 의미(사람은 뭔가 살아가는 의미를 갖는다) ←서커스

C 현생 탄생의 배경 1: 물의 풍경 (아이베 · 시골 · 가족)

산천 · 곤충	경업농가	초등학교교사인 아버
조용한농촌	가족이 함께 추수	지 장에아름지원
애니메이션	배경	열마의 죽음
산신들		42세, 10세
본이세신사	대본교 · 군시	조조의 영향
(구오예정)	세계연장, 평화도시	글, 독서, 지혜

D 배경 2: 20대후반의 고민 '21세기의 2대문제'

① 환경문제→반농 반 X →②전직문제

주식회사 페리시모 시절(1989.4~1999.1) '인생의 2 번의 분기점' =33세와 42세, 취직 활동을 넘어 전직 활동이 됨

E 배경 3: 인생을 바꾼 키워드 4 (20대 후반)

A 7세대후(네이티브)	이데리	B 장래세대(Future Generation)
란 · 이로퀴아족)	지구서미트 · 1992)	
C 후세대의 최대 유물	D 반농반지 (아쿠시마지구 작가 · 호 시카와준배)	
(우치무라 간조 · 1894)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 인가? 묻?사였?사상? (1994 年 우치무라간조 33 세에 남긴 말)

*반농반지→반농반화가 (시미지키토슨) 반농반공 (나시모츠노치카즈)

창공주둑→우주 (자일런부부) 우창(기아타지토)

F 반농반X 히스토리 : *1965 年 교토부 아이베시출생

1989 경=현경문제와 전직문제에 직면

1993 경=「반농반지」라는 말을 전함

1994-1995 경=반농반X 라는 말이 탄생

1996=자급농식작(논, 밭) *다듬에 밭 탄생

1999= 33 세를 기점으로 토사, 교항 아이베로 U 텀

2000= X 연구소설립, H P 개설, NPO 아시모넨트아이베 참가

2002=증권한대농업 「정리규범」 (농문협에) 짓기고

2003=일경신문에 크게 소개됨, 소니메가진에서 「반농반X라는 삶」 출

반, 아사히서평

2004=NHK 방송 「이웃의 자취」 출판

2006=대만에서 중국어판 「반농반 X」 출판,동경 첫강연

2007=반농반 X 디자인스쿨@아이베 개강

2009=대만첫강연,영어권으로 소개(에다히로츠코&JFS),중국청두의 타 문지에 반농반 X가 20 페이지 특전

2010=라디오에 실어방송, 미국에서 귀국, 공저 한국어 번역

2011=반농반지@토리데 반농반지@동해로시마, 대만정부의 초빙으로 1 개월동안 영어화 프로젝트

2012=반농반 X 출판에서 실천관을 리뉴얼 출판

2013=대만에서 2 번째 저서 출판, 중국에서 반농반 X 첫출판

2014=중국 첫강연,파리,케니드로부터 취재,홍콩 잔지에 등장, 문고화, 한국 강연, 중국에서 2 권째 출판 예정

G 소규모 농업의 키워드 Farmer and Family

연직도 아니고	일식의 재료	생명 다양성
시간도 아니다	일식 전략	관계성의 회복
스물 사이즈	소규모 농업	탈인간중심주의
스물 역년	명상 · 사색	법례/풍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손 (hand)	수행과 창조	안테나 · 감성 · 미
몸 · 신체성	강사의 감수성	

H 반농반X 8 개의 키워드: 본인과 의지

정보 발신 (중어, output)	전직 (1인 1 연구소)	순작업,틀을이 하는 부연아트
영상, 사색, 정신성	반농반X	소규모 농업,체전 신체성
고향 · 지역 커뮤니티	지구 (예로,지속가능성)	가족 (베이스캠프)

하단 = 뿌리 중언 = 실선 상단 = 표현

I 「타 · 네」 라는 2 개의 축 (타네,세앗)=타 · 네) 날개&뿌리

Creation(competition, collabo) 평화 문화 창조, 참여, 날개, 바탕 타 (늘어, 많이, OPEN) ↑

내 (뿌리, 근원, BASIC) ↓

뿌리, 숲 (바람×흙×물)

Sustainability 안심 · 안전 · 지속가능성 · 생명

사티에 쿠마르 Soul(춤), Soul(마음), Society(사회)

생명의 다양성×사명의 다양성×지역의 다양성×조합 = 1

J 시와 밭 (속담, 시를 만들기 보다 밭을 만들어나라 = a)

A 시× 밭○ B 밭×시○ C 시×밭× D 시○밭○

*노들관 교역 or 수행과창조 100 (전언농업) or 0 (소비자)

K 다양한 반농반X 스텝일 (사명의 다양성 !)

반농반 NPO, 반농반사회기업가, 반농반시민회의원, 반농반기술, 반농반의사,반농반도예가,반농반커맨, 반농반공예, 반농반전기, 반농반기도

...당신이라면? 반농반 ()

L 21 세기의 2 개의 섀스 *R 카는 1964 사망

섀스 · 오브 · 윈드(자연의 신비함과 소셜디자인의 섀스(지역과 사 불가사의함에 노포는 갈성) *

회문제를 작업하는 섀스)

M 4 개의 「아렌다」 (인생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왕가리 · 마티아세	전부적 재능의 미발휘
사물에는 신이 / 과분함	(사명의 다양성)
지역 자원의 미활용	미발란보레(아년
(대나무,식문화,계단식논etc)	(조합은 무한대 !)

N 21 세기의 가장 슬퍼 지름 어떻게 살것인가의 대안

가 (+) = 계속 / 매일의 작은 행 강 (-) = 불쌍의 사상 / Plain Liv

동, 실천의 축적 ing, 죽음

증 (x) = 불란보 / 모두가 연계를 제 (÷) = 포커스 /

체어, 공동 창조 자기메타에 전통, 세계 발견

O 자신의 「행리」를 만들 (조직, 마을만들기에도 적용 가능)

자신 keyword A x B x C

활동무대 (교항, 커뮤니티 등)

장소가 정해지면 수행이 시작된다 (신랑 ?)

표지권을 알면 사명을 찾을 수 있다 (후지모토 토시모)

자택에서 반경 3 킬로 이내에서 보물을 찾아라 (반경 3 킬로 작전)

P X력을 UP하는데 중요한 것

테마 · 컨셉	1 만시간 (지속력)	정보발신 output
텍호 · 세 직함	중요한 것	플란보, X서포트
비전 철학 사상		제작, 가설 보유
정리, 결정화	안테나 (말 · 사고)	아이디어 · 기획
예) 도예가와 작품	1 만시간÷8÷365 일 = 1년	

갈성, 정리, 조합, 크리스탈라이즈 (수정화) 발신 ...

Q 3 개의 일본의 공생스터일에 따른 일본 만들기

일본의 직언 (전직, 사명, 1인 1 연구소)

일본의 농사 (자연농작)	일본의 식 (일식,마크로비오틱)
---------------	-------------------

*마이크로비오토 (미생 1977) 일본의 전직×F E C자급원

R 앞으로의 사고와 생활 방식 「7시점」

- 1) 경전애인, 직적거사의 마음 (결과)
- 2) 틀잡고 계절의 변화 등 「축복」을 느끼는 갈성
- 3) 잡초 같은 강인함, 역경을 넘어 두박뿌려 꾸준하게 (적선)
- 4) 만남으로 인생을 열어가다 (정전기회 개발)
- 5)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사회변화를 (revolution)
- 6) 「있는 것에 매달리기」 보다 「있는 것을 찾기」
- 7) 주부의 X, 실란상상의 X를 살려 프로투스

S 자주 있는질문=결연농가와의 차이(두마리 토끼를 쫓는것?반농반 X 는 엘리트여민가?일본 전직가 반농반 X 를 하면? 농본주의?농본×지 본지식 = 농지본주의 !)

T 연구데마, 땅과 서커스, 시와 밭, 농작, 갈성, 밭리 모델, X 로 생활, 1인 1 연구소, 사회 기업, 동아시아 등

농업관련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대지를 지키는 모임



후지타 카즈요시
(藤田和芳)

대지를 지키는 모임 대표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일본의 2대 회원제 유기농산물 유통회사입니다. 약 2500 회원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을 91,000세대의 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철 먹거리 택배사업, 식재료 도매, 마르쉐 사업과 농장카페 등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1975년 유기농업 보급을 위한 NGO<대지를 지키는 모임> 설립에 참가. 이어 1977년에는 사회적 기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대지(현 주식회사 대지를 지키는 모임)> 설립.

현재, 주식회사 대지를 지키는 모임 대표 이사, 죠지(上智)대학 비상근 강사, 일본 소셜비즈니스 네트워크 대표 이사, (사회복지재단) 호혜를 위한 아시아 민중 기금 회장 등을 겸하고 있음

<저서 · 공저>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주식회사』 (공저)
『농업이 나설 순서다! 「THAT'S 국산」 운동을 권장하다』 등

대지를 지키는 모임이란



「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비즈니스’란

- 안전한 채소와 가공식품 등의 택배사업
- 인터넷을 통한 위 품목의 통신판매
- 안전한 식자재의 도매
- 안전한 건자재로 지은 자연주택의 판매
-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사업

회사의 개요



사명: 주식회사 대지를 지키는 모임
본사: 치바현 치바시 미하마구 나카세1-3
마쿠하리 테크노가든 D동21층
대표자: 대표이사사장 후지타 카즈요시
설립: 1977년11월
자본금: 3억4,742만5천엔
매출액: 133억엔(2014년3월기)

- 주요사업
 - 택배
 - E코머스
 - 식자재 도매
 - 자연주택
 - 시장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시작



1975년

NGO 「대지를 지키는 시민의 모임」 에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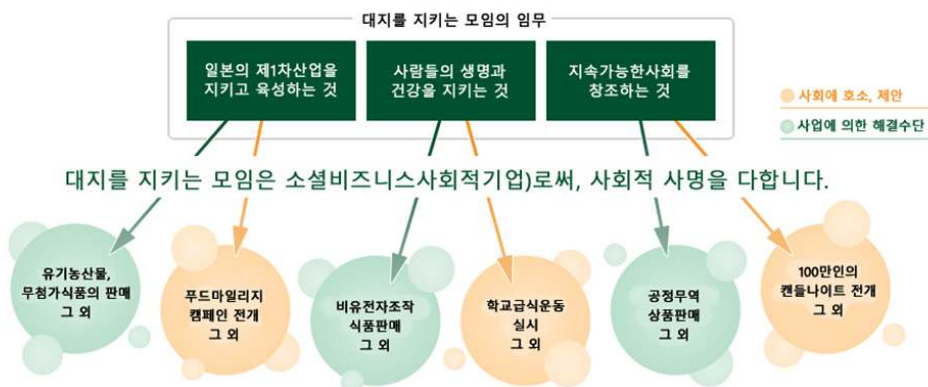
7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문제들

-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 → 공해
- 농업의 공업화 → 농약 과다 살포에 의한
환경 파괴 & 농민의 건강피해
- 유통의 고도화 → 농촌과 도시의 괴리
→ 식물이 생물임을 모르는 도시주민
→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채소, 가공품이
주류로

NGO대지를 지키는 모임은

-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과 소비자를 동료로
-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운반하고, 먹는
운동을 사업화시킴

비즈니스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채

- ①유기 비료를 사용한 토양만들기
- ②농약이나 제초제등의 약에 의존하지 않기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축산

- ①사료는 비유전자조작 +
비포스트하비스트
- ②약에 의한 질병예방에 의존하지 않음
- ③사료부터 생산이력까지 공개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수 산

- ①국내 수산업을 응원
- ②수산자원의 지속성 배려
- ③퇴색, 산화방지를 위한 약제 사용 금지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가 공 품

- ①화학조미료, 식품첨가물 사용 규제
- ②원재료도 기본적으로 국산 사용
- ③수입품은 유기가공식품과 공정무역을
우선으로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잡화

- ①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최대한 배제
- ②국산품, 지역의 활성화, 기술의 승계
- ③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택배사업 : 일본 최초의 유기농 택배사업,
인터넷 통신판매
회원제 택배, 웹스토어, BB마르세



198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산물
택배시스템 시작

국산품을 중심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제철 식재료나 가공품, 잡화류를
매주 택배로 발송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레스토랑 사업 : 시내에서 먹는 대지를 지키는 모임



농원카페 & 바루

「Daichi & keats」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d.

마르세사업 : 시내에서 살 수 있는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찬거리
긴자 미츠코시, 에큐트 도쿄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d.

도매사업 : 시내에서 살 수 있는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야채

내츄럴로손, 긴자미츠코시

데일리야마자키, 오다큐OX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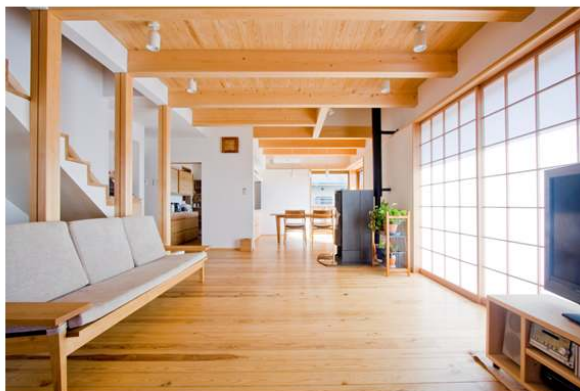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자연주택사업 : 주거에도 안심을!

100% 국산 원목으로 만드는 집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중국사업: 중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택배

- 중국 농민의 지위 향상
 - 중국 국내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회복
-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품을 제안, 판매



大地を守る会
DAICHI WO MAMORU KAI



소셜 비즈니스의 구체적 전개

1. 1차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사회를 위해

- 푸드 마일리지 캠페인, 쌀 프로젝트²¹ 사업에 의한 해결수단
- 유기농산물·무첨가식품의 판매

2. 생명과 건강을 보호·육성하는 사회를 위해

- 원전반대모임, 유전자 조작 식품 반대 캠페인 사업에 의한 해결수단
- 비유전자 조작식품의 판매

3.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창조

- 100만인의 캔들 나이트, 해외 지원 사업에 해결수단
- 공정무역상품의 판매

사회 문제를 단지 반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이러한 이념이 바로 *대지를 지키는 모임*의 소셜 비즈니스나 CSR로 사회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약100회의 이벤트 개최

→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메워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듭니다.



요리 교실



산지에서의 수확체험



해외 지원과 교류

1. 해외의 유기농업단체, 개인농가와의 교류를 통해 의식을 높여 보다 좋은 사회를 지향하다

- 교류 투어 실시, 연구생 제도 실시 등

2. 해외 공정무역 상품의 생산자를 지원한다.

- 스마일 올리브기금
→ 팔레스타인 산 올리브 오일 매출의 일부를 올리브 묘목 구입 자금으로 지원한다.
- 동티모르 어린이 기금
→ 동티모르 산 커피 매출의 일부를 동티모르의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에 지원한다.
병아리프로젝트 등
- DAFDAF기금
→ 해외 생산자의 요청에 기금을 모아 지원한다.
팔레스타인의 농로 건설, 미얀마 유기농장 지원 등

스마일 올리브기금 팔레스타인에 올리브를 심다



DAFDAF기금 미얀마의 유기농장을 지원



끝

농가와 도시민을 잇는
농가시장

Earthday Market



토미야마 히로시
(富山普)

NPO법인 Earthday Market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도쿄에서 열리는 아침 시장 어스데이 마켓 (earthday market)은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서로 직접 대화 할 수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주민이 환경과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실천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경력>

도쿄 아침시장 · Earthday Market 사무국장
NPO법인 Earthday Money 협회 이사

「제6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 포럼」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

Earth Day 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 활성화에 대하여

목차

- 1、농가시장과 도농의 관계
- 2、농가와 도시생활자를 잇다
 - 도시의 마켓에서
 - 농가의 밭에서
- 3、정리하며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 활성화에 대하여

1. 농가시장과 도농의 관계 -종래의 농가시장

농가시장이란 원래 자급농가의 잉여작물을 물물교환 또는 현금화 하기 위해 농가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에 모여 이루어지던 것입니다.

그곳에 식량이 모이므로써 사람이 모이고, 정보가 모이고, 커뮤니티가 충분히 형성 되어지자, 이윽고 가설의 농가시장이 아닌, 상설시장이 형성되어, 그곳에 공적인 정보가 모이고, 지역의 관공서 같은 요소가 생겨 도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도시를 만든 것은 바로 식량이고, 그 기점이 된 것은 농가시장인 것입니다.

 Earth Day 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1. 농가시장과 도농의 관계 -1970년 이후의 형태

도시로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한 간선도로가 생겨 유통업, 중개업, 소매업이 생기면, 생산 이외의 노동에 의한 경제가 발달하여 분업화, 전업화 하여 화폐 경제화가 이뤄집니다.

도시는 보다 도시로서의 기능(소비의 주체로서)을 하고, 농촌은 더욱 농촌으로서의 생산력을 높여 도시에 끊임없이 생산물을 보냅니다. 이 유통의 효율화는 농가가 채소를 팔러 오는 비효율을 없애고, 안정적이며, 대량의 물류를 실현 시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농가가 판매하던 작물이 농가부재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작물의 평가는 가격이 되고, 소비자 우선이 됩니다.

가격결정에 개별적인 설명, 교섭이 가능한 판매의 기회가 사라져, **채소가 농가를 말해주는**

작물 에서 **상품**
으로 바뀝니다.

 Earth Day 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1. 농가시장과 도농의 관계-1970년 이후의 형태

작물 ⇒ 상품이 됨에 따라 저렴한 가격이 더 가치 있게 되고, 다소 물건이 나쁘더라도 저렴한 상품이 생기며, 더욱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논리가 생기며, 소비자에게 더 싼 것, 유통판매를 하는 일반적인 업자에게 보다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중요시 됩니다.

1970년 이후, 미국의 신문에 사각형 토마토의 풍자화가 그려지며 일본에서도 공해와 농약, 화학비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자연식, 유기농업 운동이 시작됩니다.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1. 농가시장과 도농의 관계-1970년 이후의 형태

분업, 전업이 진행되어 우리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인 먹거리의 안전이 불확실해 졌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1. 누가 재배했는지 모른다.
2. 어디서 재배했는지 모른다.
3. 작물의 제철이 언제인지 모른다.
4. 작물의 재배 방법을 모른다.
5. 작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요리 방법을 모른다.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지연, 혈연의 감소나 핵가족화 등의 세대간의 단절도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1. 농가시장과 도농의 관계-1970년 이후의 형태

편리성이나 저렴한가를 추구하다 맞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생산자와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유기농업운동과, 생협, 자연식, TEIKEI 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농가시장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 이후부터, 먹거리의 안전, 로컬리제이션(지역화), 오가닉을 중심으로, 사회문제에서 발생한 먹거리와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태로 늘어났습니다. 그보다 10년이나 뒤쳐진 일본. 일본에서도 드디어 문제해결형태의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가 2006년에 시작된 도쿄 아침 시장·어스데이마켓 입니다.

 Earth Day 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 활성화에 대하여



 Earth Day 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 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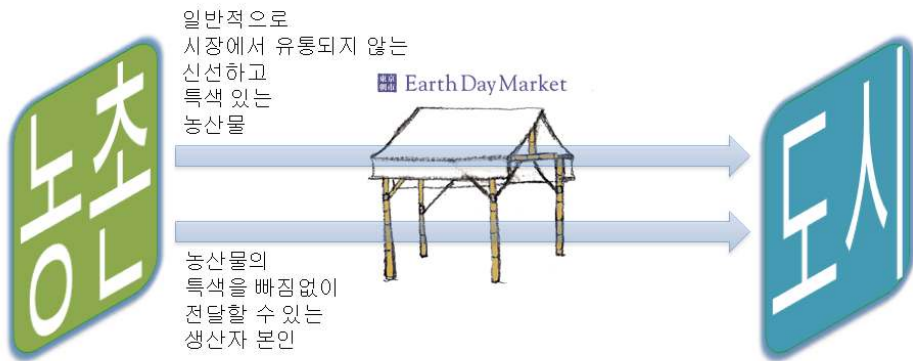
2. 유기농가와 도시생활자를 이어주다

-도시의 마켓에서

도시와 농촌이 한번 단절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그 차이가 문제해결의 원동력의 하나입니다. 도시에는 호기심과 구매력이 있고, 농촌에는 도시에는 없는 풍요로운 자연 풍경과, 신선하고 맛있는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양자가 다시 만나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농가시장입니다.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東京 町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2. 유기농가와 도시생활을 이어준다

-농가의 밭에서

농가시장을 열어 농가와 도시생활자가 만나면 우선 도시생활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모른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므로써

1. 누가 재배했는지 모른다.
2. 어디서 재배했는지 모른다.
3. 작물의 제철이 언제인지 모른다.
4. 작물의 재배 방법을 모른다.
5. 작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요리 방법을 모른다.

농가시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직접 농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東京 町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사와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2. 유기농가와 도시생활을 이어주는 것

-농가의 밖에서

농가시장을 열어 농가와 도시생활자가 만나면 우선 도시생활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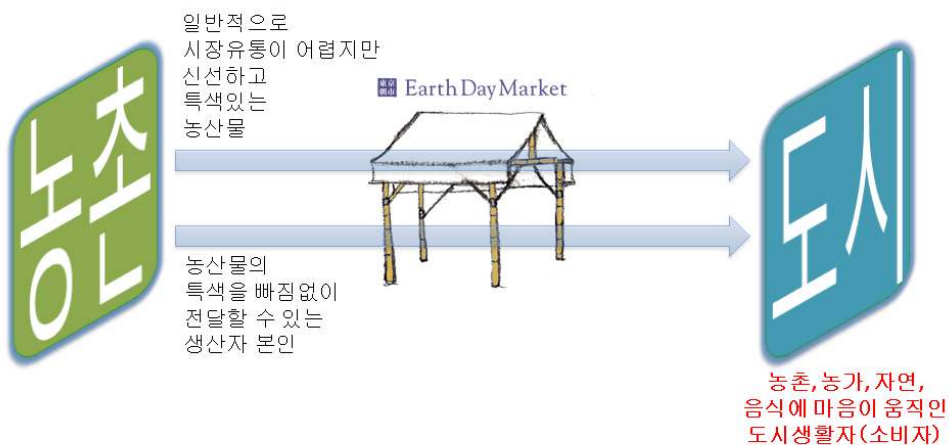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모른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므로써

- | | |
|--------------------------------|--------------|
| 1. 누가 재배했는지 모른다. | ⇒ 알게 된다. |
| 2. 어디서 재배했는지 모른다. | ⇒ 가보고 알게 된다. |
| 3. 작물의 제철이 언제인지 모른다. | ⇒ 알게 된다. |
| 4. 작물의 재배 방법을 모른다. | ⇒ 체험할 수 있다. |
| 5. 작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요리 방법을 모른다. | ⇒ 배울 수 있다. |

농가시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직접 농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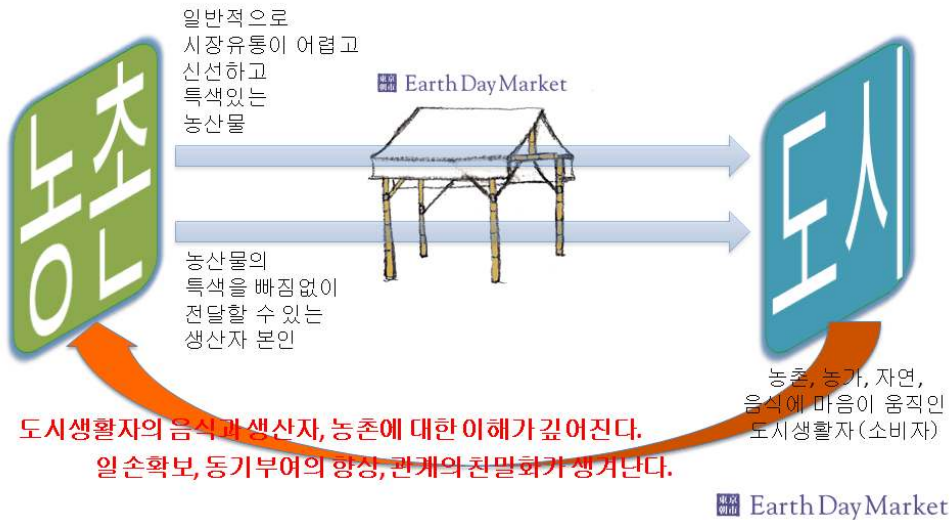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사와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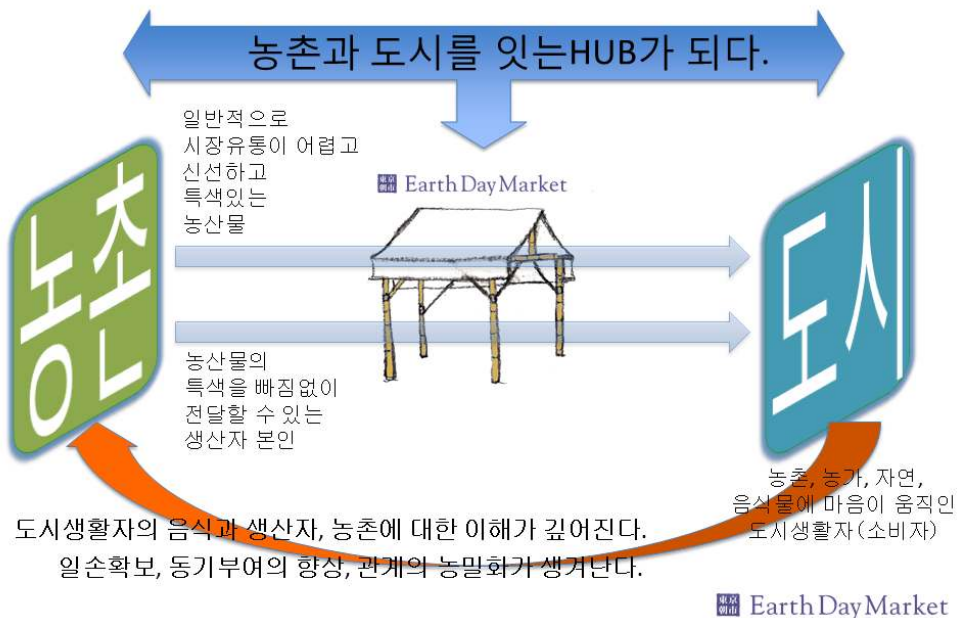


 Earth DayMarket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어스데이마켓의
도농교류에 의한 농사와 농촌의 활성화에 대하여



3、정리하며

「농부아저씨가 기른 먹거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말은 20년 전에까지 제가 자주 들던 말입니다만,
지금은 그다지 들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도시와 농촌은 서로를 활성화시키는 관계이자, 서로 공존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존재가 이상적입니다.

- 1) 유통에서는 누락된 가치를 전하는 장소
- 2)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배워가는 장소
- 3)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만드는 장소
- 4) 소비에 그치지 않고 가치기준을 만드는 장소

 Earth Day Market

를 시장에서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3. 정리하며

그리고 항상 사회에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농가시장.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존의 유통에는 이길 수 없다.
농가시장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역할을 만들다.

- 1) 살아있는 SEED BANK
- 2) 환경보호활동
- 3) 지속 가능한 사회에의 제안
(BDF, CO2삭감, 로컬리제이션,
자립형의 소비위의 경제활동, 물물교환)
- 4) NPO등의 사회적 활동의 계몽



마지막으로



Earth DayMarket

마지막으로



Earth DayMarket

감사합니다.

도시와 농업의
즐거운 관계를 지향하며

도쿄 네리마구 시라이시 농원



시라이시 요시타카
(白石好孝)

NPO법인 발의 교실 대표

도쿄의 네리마구는 도시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시라이시 씨가 운영하고 있는 “오이즈미 바람의 학교”는 시민들이 농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체험 농업할 수 있는 시민체험 농장으로서 네리마구에서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주요 경력>

2013년-현재, 농림수산성 식육 위크숍 위원

2010-2013년, 농림수산성 식품·농업·농촌
대책심의회 위원

2010년 3월, 일본 농업상 대상 수상

2009년-현재, 도쿄도 농림수산대책심의회 위원

2007-2013년, 네리마구(練馬区) 농업체험
농장주회 회장

1993년-현재,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연구소 강사

1992-1993년, 전국농협 청년 조직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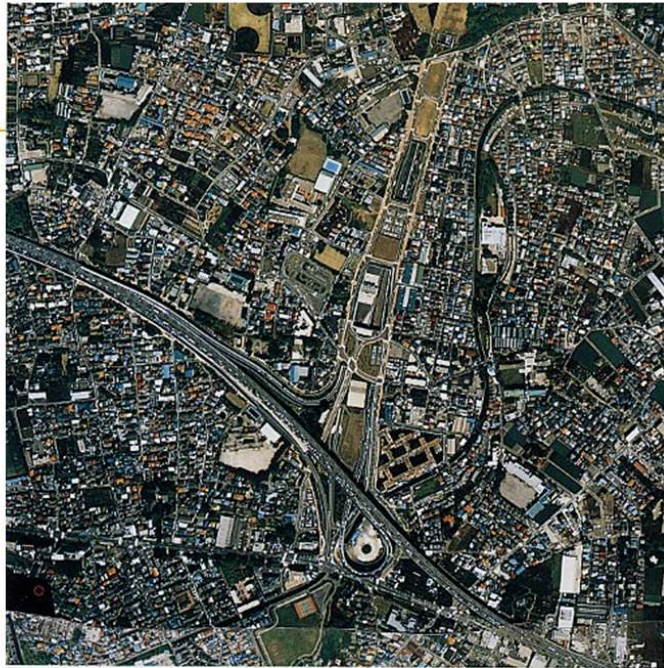
1991-1993년, 도쿄도 농협 청장년조직협의회
위원장



여기는 어디?



도쿄도
네리마구



60년전의 네리마구



현재의 네리마구



시라이시농원의 사업내용

● 야채의 생산 판매

연간 약 **40** 종류의 야채를 생산하여 슈퍼와의 계약 판매・농협
직매소・직접 판매・학교 급식 등으로 판매
블루베리 따기

● 농업체험농원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야채 재배 컬처 스쿨로, 현재 **125**가족을 받아 운영

● 농업체험(食育식육)을 권장하는 **NPO**법인 발의교실

지역의 초,중학생에게 농업체험을 지도・네리마 무우의
생산체험이나 사회과 견학・직업체험 등 연간 **1000**여명의 학생을
받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사업소

사회복귀훈련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을 받음

● 발의 레스토랑「La모리」

약100여종류의 야채의 생산과 직매



다품목·소량 생산·생산지 소비



네리마 무의 생산



블루베리 따기 관광 농원



블루베리 따기 관광 농원



자동판매기로 농장 앞 판매



농협 도쿄 아오바 직매소에서 판매



오오이즈미 지구 코구레촌



이타바시 지구 니린쿠사



네리마 지구 만남의 광장

지역 초·중학교 급식 자재 공급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여
비료로 사용하여 다시 밭으로 환원하다.



도내 슈퍼에서 계약 판매



시라이시농원의 사업내용

● 채소 생산판매

연간 약**40**종류의 채소를 생산하여 슈퍼와의 계약·JA
직매소·직접판매·학교급식 등으로 판매

블루베리 따기

● 농업체험농원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채소를 재배하는 컬처스쿨로써**125**가족을 받아 운영

● 농업체험(식육)을 권장하는**NPO**법인 발의 교실

지역의 초,중학생에게 농업체험을 지도·네리마 무의
생산체험이나 사회과 견학·직업체험 등 연간**1000**여명을
받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사업소

사회복귀훈련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을 받음

● 발 레스토랑「La모리」

도시라는 특색을 살린 농업경영을 모색

- 안정적인 수입 확보
- 노동의 효율화
- 시민의 니즈에 맞추고, 지역과 공생

시민참가형의 새로운 농업경영으로

야채 재배 컬쳐스쿨

농업체험농원 을 고안

Copyright(c)National Chamber of Agriculture All rights

네리마구 농업체험농원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강습회 풍경



강습회 풍경



오오이즈미 바람의학교 봄학기 강습회 일정

大泉 風のがっこう 野菜作り講習会 日程

1. ほうれん草・小松菜・ジャガイモ
3月20日(木) × 午後2時30分
22日(土) 午前10時 午後2時30分
23日(日) 午前10時
2. キャベツ・大根・レタス
3月28日(金) × 午後2時30分
29日(土) 午前10時 午後2時30分
30日(日) 午前10時
3. インゲン・トウモロコシ
4月11日(金) × 午後2時30分
12日(土) 午前10時 午後2時30分
13日(日) 午前10時
4. 枝豆・茶豆の種まき、トマト・ナス等の準備
4月18日(金) × 午後2時30分
19日(土) 午前10時 午後2時30分
20日(日) 午前10時
5. トマト・キュウリ・ナス等の植え付け
4月26日(土) 午前10時 午後2時30分
27日(日) 午前10時 午後2時30分
5月3日(土) 午前10時
6. トマト・キュウリなどの支柱立て
5月9日(金) × 午後2時30分
10日(土) 午前10時 午後2時30分
11日(日) 午前10時

오오이즈미 바람의학교 강습회 자료

大泉 風のがっこう 野菜作り講座(春その1)

★風のがっこう ご利用上のご注意

- ・耕す区画をご確認ください。(番号札の北側・白い小さなラベルでも確認)
- ・野菜作り予定表にそって作付けしますので、自由に作る場所はありません。
- ・緑色の支柱を物差し代わりに使います。
- (計ったところに割り箸を差しておくとう便利です。)
- ・肥料等は農園で用意されたものを使用してください。
- ・肥料の計量用かんは1杯200ccです。(肥料は多すぎると害になります。)
- ・使わない種は、大切に保管してください。
- ・トンネル用支柱はお一人分18本です。(束になっています)

1. ほうれん草・コマツナ・みず菜の種まき

- ・肥料 有機配合 400cc かきがら石灰 300cc
- ・有機配合肥料、かきがら石灰を混ぜ合わせ、野菜作り予定表にそってほうれん草・コマツナの位置に全面散布します。
- ・よく耕した後、東のクイから20cmを起点に、幅70cm、高さ5~10cmのベッドを作ります。
- ・南北に深さ1~2cmの溝を5列作ります。
- ・ベッドを3等分し、ほうれん草・コマツナ・みず菜を3~4cm間隔で1粒ずつ播き土をかけ、上から軽くたたきます。

2. ジャガイモの定植

- ・肥料 堆肥 バケツ1杯 有機配合 400cc
- ・芽の数が均等になるよう注意し、男爵を2等分・北あかりを3等分して、切り口に木炭灰をまぶします。
- ・東のクイから西へ150cmのところに、クワで南北に深さ20cmほどの溝を掘ります。
- ・堆肥と肥料を溝に入れ混ぜ合わせます。
- ・土を10cmほど埋めもどし、種イモの切り口を下にして30センチ間隔で置きます。
- ・さらに土を埋め戻し、高さ10cm程度に盛り上げて植え付け終了です。

강습회 풍경 - 모델 구획에서 시범 지도



강습회 후 각자의 구획에서 작업



1 구획은 30m² (약2.5m × 12m)



같은 매뉴로 만들기에 받은 질서정연



연간이용료는 4만4천엔

(네리마 구민은 32,000엔, 차액은 구가 지원금으로부담)



비료·종자·농기구 등은 농원에서 준비



월 약 ¥4,000 으로 즐기는 전원생활

수확물을 시장 구입가격으로 환산해보니 8만엔 정도였다.



농가입장에서도 매력적

적은 노동력으로 야채 생산을 웃도는 소득



농사에 대한 「보람」도 느껴



수확제 등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커뮤니티로서 역할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한여름의 수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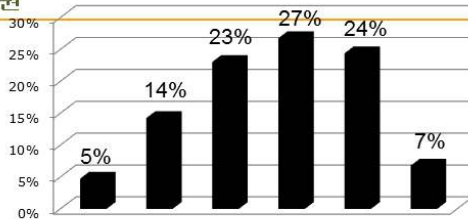


「大泉 風のがっこう」 真夏の収穫祭 98.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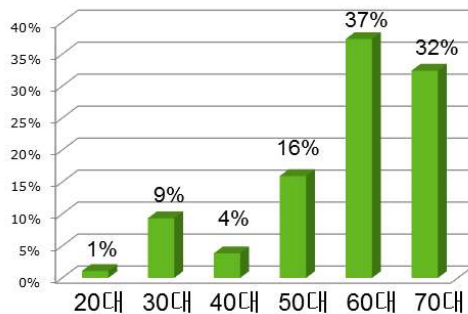
체험농원과 시민농원의 이용자 연령층

농업체험농원

2006년 농공대 조사



시민농원



Copyright(c)National Chamber of Agriculture All rights reserved.

네리마 방식 농업체험농원

2010년 3월 현재 네리마구에는
15 농가가 개원(약 1600 구획)
도내에서는 약 60농가가 개원

네리마구 농업체험농원 농원주회

제38회 일본농업상 대상수상

농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 시작



시라이시농원의 사업내용

- 채소 생산판매
연간 약**40**종류의 채소를 생산하여 슈퍼와의 계약·**JA**
직매소·직접판매·학교급식 등으로 판매
블루베리 수확
- 농업체험농원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채소를 재배하는 컬쳐스쿨로써**125**가족을 받아 운영
- 농업체험(식육)을 권장하는**NPO**법인 발의 교실
지역의 초,중학생에게 농업체험을 지도·네리마 무의
생산체험이나 사회과 견학·직업체험 등 연간**1000**여명을
받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사업소
사회복귀훈련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을 받음
- 발 레스토랑「La모리」

2003년 NPO법인 발의 교실 설립



파종에서 부터 수확까지



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체험을



1학년생들의 고구마 심기



중학교의 食와 農 수업



밭을 갈고 시금치 씨앗을 심어



시금치를 수확하여 급식으로



밀의 수확과 우동 만들기 체험



부모님과 함께 하는 농업체험(네리마 무 생산)



부모님과 함께 낙농체험 (도쿄 23구내 유일한 고이즈미 목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농업체험 (야마나시현의 계단식 논에서 쌀 재배)



시라이시농원의 사업내용

- 채소 생산판매
연간 약**40**종류의 채소를 생산하여 슈퍼와의 계약·**JA** 직매소·직접판매·학교급식 등으로 판매
블루베리 수확
- 농업체험농원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채소를 재배하는 컬쳐스쿨로써**125**가족을 받아 운영
- 농업체험(식육)을 권장하는**NPO**법인 발의 교실
지역의 초,중학생에게 농업체험을 지도·네리마 무의 생산체험이나 사회과 견학·직업체험 등 연간**1000**여명을 받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사업소
사회복귀훈련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을 받음
- 밥 레스토랑「La모리」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사업



행정 지원을 받으며 농사작업을 체험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라이시농원의 사업내용

- 채소 생산판매
연간 약**40**종류의 채소를 생산하여 슈퍼와의 계약·JA
직매소·직접판매·학교급식 등으로 판매
블루베리 수확
- 농업체험농원 오오이즈미 바람의 학교
채소를 재배하는 컬처스쿨로써**125**가족을 받아 운영
- 농업체험(식육)을 권장하는**NPO**법인 밭의 교실
지역의 초,중학생에게 농업체험을 지도·네리마 무의
생산체험이나 사회과 견학·직업체험 등 연간**1000**명 남짓
받고 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사업소
사회복귀훈련으로서 정신장애인을 받음
- 밭 레스토랑「La모리」

지방소비 레스토랑 「L a 모리」

2007년 8월 오픈



목재도 지산지소

오쿠타마의 삼나무 목재를 중심으로



창 밖에서는 넓은 밭이 보이고...



아침에 딴 야채와 산지를 고집하는 바람의 학교 학생이기도 한 모리쉐프



밭에서 레스토랑을 바라보며



시라이시 농원의 활동이었습니다.



사람과 농업을 잇는 회사,

마이팜(My Farm)



타니 노리오
(谷 則男)

주식회사 마이팜 부대표

‘마이팜’은 농촌의 늘어가는 휴경지와 농업을 시작하려는 도시민을 연계하여, 농업체험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학교를 운영하면서 귀농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주요경력>

- 현 주식회사 마이팜 부대표이사
- 현 교토 야마시로 농업협동조합 이사
- 현 교토부 조요시(城陽市)농업위원회 회장

2008년 (주) 마이팜 이사

2001년 전국 농협 청년 조직 협의회 회장(1년)

1984년 취농



人と農をつなぐ会社



주식회사 마이팜
대표이사 니시즈지 카즈마

Copyright©2014 MYFARM Inc. All rights reserved



경영진 약력 일람

대표이사 니시즈지 카즈마		1982년6월 후쿠이현 출생 (6월28일) 2006년3월 교토대학 농학부 졸업 2006년4월 주식회사 넥스웨이 입사 2007년9월 주식회사 마이팜 창업 대표이사 취임 2010년9월 농림수산성 정책심의위원 취임
이사 다니 노리오		1962년 교토부 출생 (8월18일) 1984년 농업에 종사 2001년 전국 농업 청년 조직협회 회장 (1년) 2002년 조요시 농업위원회 위원 (현직 5기차) 2008년 (주) 마이팜 이사 취임 2010년 JA그룹 교토농업 법인협회 부회장 (현직) 2014년 교토 아마시로 농업협동조합 이사 (현직) 2014년 교토부 조요시 농업위원회회장 취임 (현직)
사외이사 아마구치 카즈히코		1957년 에히메 출생 (2월8일) 1975년3월 에히메대학 농학부 부속 농업고등학교 졸업 1996년 아마구치 원예를 설립, 대표이사로 사장 취임 2001년 버그어스 주식회사를 설립, 대표이사 사장 취임 (현임) 2014년4월18일 주식회사 마이팜 사외이사 취임 (현임)
감사 다츠미 히데카즈		1968년 오사카부 출생 (10월29일) 1997년7월 하스트 주식회사 설립 대표이사 취임 (현임) 2013년6월 주식회사 마이팜 감사 취임 (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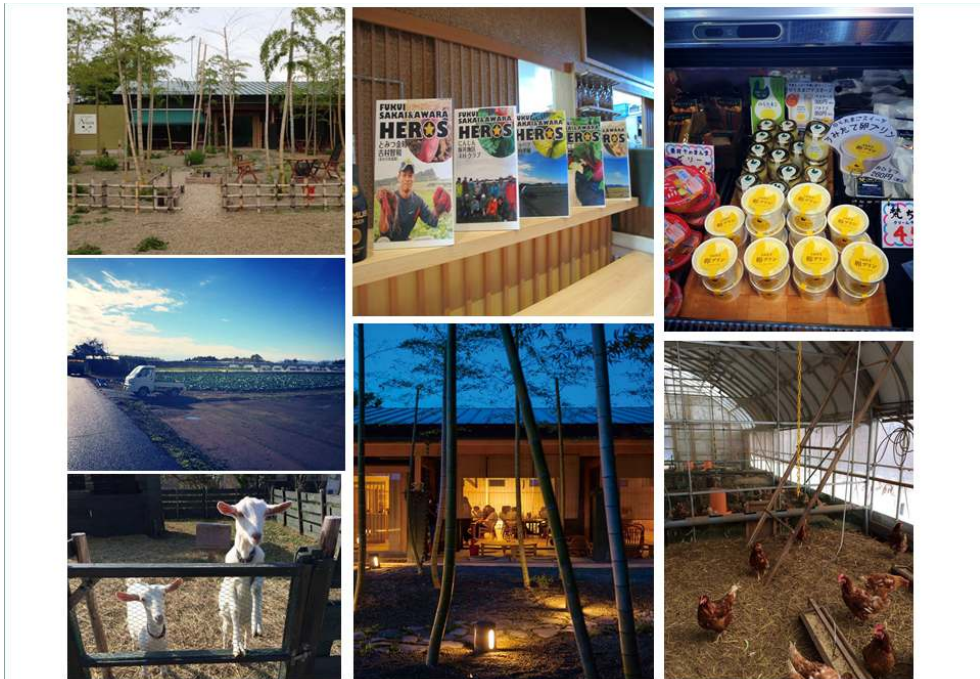
사업 전체 개요



【교토 오피스】 〒600-8841 교토시 시모교구 스자쿠쇼우카이쵸1-1 KYOCA회관3F TEL : 075-746-6213/FAX : 075-746-6214 【도쿄 오피스】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5쵸메8-4 시바타빌딩 7층 TEL : 03-6435-9675/FAX : 03-6435-9676	■마이팜농원 사업 2008년부터 개시 ·현재78농원 ·이용구획수2500구획 ■에그리노베이션 대학교 사업 2010년부터 개시 ·관동·동해·관서 3곳에서 전개 ·졸업생 350명(기존학생수 약100명) ■직영농장 사업 ·사가·미야기·후쿠이·치바·요코하마 5곳에서 전개 ·식품 가공 공장과 레스토랑등 6차산업화를 진행하는 지역 거점 ■유통이노베이션 사업 (2012년부터 개시) ·계약농가수 130가구 ·월간 거래규모 최대 2000만 평균500만엔 규모 ■소매점 마이팜머 사업 (2014년부터 개시) ·에그리노베이션 대학 졸업생의 채소와 농장에서 수확한 채소를 판매하는 사업 ·2014년 내에 관동·동해에 1점포씩 점포를 전개
--	--







6차 산업화의 모델농장 - 직영농장·가공장·농원카페



6차 산업화의 모델농장 - 직영농장·가공장·농원카페

[오픈토크]

국내 도농교류 단체 소개

주제그룹 1. 도시농업

씨앗들협동조합

농락

우보농장

주제그룹 2. 도-농, 얼굴있는 유통

마르쉐

쌈지농부

농사편드기획단

주제그룹 3. 귀촌베이스캠프

청년공관장@동강

홍성 청년농진로농창업플랫폼'온'

청송창조지역사업단

씨앗들협동조합

씨앗들협동조합 소개

‘씨앗들협동조합’은 2010년 1월, 대학교 안 버려진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씨앗을뿌리는사람들’로 시작하였습니다. 텃밭농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다른 배경과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텃밭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에 관해 공부하기 위해 ‘레알텃밭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바른 먹거리 운동을 위해 힘쓰는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여 ‘씨앗들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그동안 꾸준히 텃밭농사를 해오던 ‘씨앗을뿌리는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는 단체가 되고자 협동조합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하고,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된 후 서울 은평구의 ‘갈현텃밭’이라는 곳에서 텃밭농사를 지었습니다. 텃밭에서는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여 함께 나누며 농사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텃밭농사에 좀 더 나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독서공부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텃밭농사에 관한 강의 영상을 담은 ‘씨앗들의 도시농부학교’와 ‘e-레알텃밭학교’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도시농업의 상징인 동작구 노들섬에서 텃밭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조합의 내실을 다지자는 목적 하에 텃밭 농사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요즘, 올해는 배추농사가 잘 되어 씨앗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배추를 수확하고 김장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씨앗들협동조합 주요활동

* 공동텃밭 경작: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비닐 원칙아래 공동으로 유기농 텃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란과 오줌으로 만든 거름을 사용함으로써 생태순환의 농사를 짓고자 합니다.

* 씨앗들의 도시농부학교 & e레알텃밭학교: 도시에서 농사를 짓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와 한겨레 신문사와 함께 텃밭농사 강의영상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씨앗들의 도시농부학교에서는 토양 관리, 작물 재배 및 수확 방법, 거름 제조 방법 등 텃밭농사의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e레알텃밭학교에서는 여러 도시농업 활동가들의 지식과 생생한 경험담을 실었습니다.

* SSUM: 서울 공덕동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부지를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 김장행사 & 농촌과의 교류: 매년 배추농사를 지어 후원을 받는 재단과 함께 김장을 하여 독거노인 분들에게 꾸준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씨앗들협동조합은 흥성의 젊은 농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씨앗들협동조합의 가치

생태, 공동체, 대안문화를 지향합니다.

농락(農樂)

가톨릭대학교 농사짓는 즐거움, 농락(農樂)

농락은 가톨릭대학교 교정 내에 30평 정도의 밭에서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단체입니다. 교내에서 직접 농사를 지음으로써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 수확한 작물들을 교내외 식당이나 카페 또는 가톨릭대 학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교내에서 생산하여 교내나 학교 주변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한 수익금들을 가톨릭대학교 비타민 장학금과 부천시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에 기부하여 주변의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농사라는 활동을 통해 그린캠퍼스를 형성하고 로컬푸드를 실천하며 더 나아가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것이 저희 농락의 목표입니다.

농락의 농사는 아무래도 교내에 텃밭이 있는 만큼 학기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겉 샐러드 판매를 위해 상추, 양상추, 청경채, 치커리, 케일 등의 쌈채소를 재배하였고 그 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감자,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봄에 심은 고구마를 수확하고 김장시즌을 맞아 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락은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의 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져보고 작물을 심고 키워 수확하는 활동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직접 수확의 기쁨과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하는 텃밭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여 다소 어둡고 더러운 공간에 꽃을 심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게릴라 가드닝 활동과 마을 벽화 그리기를 통해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가까이에 있는 농촌에 농촌봉사활동도 다녀왔습니다.



우보농장

우보농장은 도시농업 시장 선점을 위한 생태농사 교육과 자원순환 시스템을 보급합니다. 토착미생물과 천연작물 액비를 활용한 생태농사, 생태뒷간과 빗물순환시스템 보급이라는 자원순환 시스템, 작물재배의 차별화와 가공 예술을 결합한 작물공동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교육농장이 사업의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순환 사업

- 향기로운 뒷간사업: 도시 아파트 실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향기로운 뒷간 보급
빗물 순환 시스템: 옥상이나 학교텃밭의 쉼터, 자재함, 하우스 등 지붕 시설을 이용한 빗물 순환 시스템 설치
- 지렁이 사육장: 아파트 베란다, 학교텃밭, 옥상텃밭, 노지텃밭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지렁이 사육장 보급

둘째, 교육농장 사업

- 토종벼 논학교 : 우보농장 다랑이논을 활용한 유치원/초-중학생 대상농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기순환 전통농법으로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벼농사 체험과 짚풀문화를 활용한 놀이의 결합
- 생태텃밭학교: 심고, 가꾸고, 수확하면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텃밭체험 프로그램 마련
- 도시농부 작물학교: 도시농부 양봉학교 : 소규모 양봉을 지향하는 도시농부 대상으로 생태적인 양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시농부 작물학교 : 생태순환 원리에 기반하여 저장과 가공이 용이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셋째, 가공예술 사업

- 작물공동체: 서울시 2015년 직거래 장터 100여곳 설치 예정으로, 7년간 20여 개 작물을 공동체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농부들의 준전업형 작물공동체 조직
- 우리별공동체: 별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철학으로 꿀벌과 생태-농사-인류를 고민하는 별 공동체 지향
- 제3섹터: 농사와 예술, 농사와 미식, 농사와 치유, 농사와 미래 등을 융복합화하는 상품 개발

마르쉐

대화하는 시장 마르쉐@

2012년 10월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첫 장을 연 마르쉐@혜화동은 ‘돈과 물건 교환만 있는 시장’ 대신 ‘사람·관계가 있는 시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르고 만들고 보살피는 생산자의 정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꽃을 피우는 이해와 감사의 시장이 이 도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시장을 지향하는 마르쉐@혜화동 시장은 농부와 요리사가 함께 만드는 농부시장입니다. 마르쉐@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하며 장보기를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소비자가 아닌 손님으로 참여합니다. 또 마르쉐@는 배우면서 사고, 배우면서 먹는 즐거움이 있는 시장으로 이 시장을 좋아하는 수많은 자원활동가와 출점팀들이 서로 도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월1회 열리는 마르쉐@시장에는 도시농부들과 귀농귀촌한 작은농부들, 그리고 농가 2세들이 가지고 나오는 생산물이 모입니다. 그리고 생태적 삶에 관심 갖는 요리사와 수공예가들의 자급적인 삶기술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먹거리와 부엌살림들이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에 農의 가치를 심어가는 작은시장 마르쉐@에서 손님들은 재래종 씨앗을 이어가는 농부들을 비롯하여 옥상농부부터 자연농, 채집농 등 다양한 형태의 농부들의 농사에 소비를 통해 참여합니다. 요리사들 역시 농부들과 배움을 나누며 로컬과 재래종의 풍요로운 맛을 담은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마르쉐@시장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좋은 디자이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정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설치물들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시장공간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일회용용기 대신 빌려주는 그릇을 사용하는 시장, 손님들이 용기와 장바구니를 들고오는 시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르쉐@는 180여 출점팀중 회장 60여팀이 출점하고 있으며 참가들 희망하는 많은 생산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또 일상의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개최회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으며 더불어 1차 농산물에 보다 친화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쌈지농부

작가가 긴 고뇌의 시간을 거쳐 독창적인 작품 하나를 창조해내듯이, 농부는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 이삭 하나를 창조해냅니다. 들녘에 흔들리는 벼와 파릇한 논은, 현대적 미에 익숙한 우리에게 농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쌈지농부는 농부와 농사를 존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쌈지농부의 생각

“농사가 예술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며, 농부의 땀과 오랜 정성이 배인 농사가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예술가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소외된 지역의 아름다움을 발굴해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 가치에 중심을 둡니다.

디자인 개발 및 실행 전반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생산과정을 생산합니다.

건강한 땅,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자연친화적이고도 의미 있는 소비를 지향합니다.

쌈지농부는 농사와 농부의 소중한 가치를 나눕니다.

‘농사가 예술이다’라는 철학으로 소외된 것을 아름답게 하는 아래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컨텐츠 기획, 디자인 컨설팅

친환경 가게 ‘농부로부터’ (헤이리예술마을본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월드몰점, 온라인)

생태문화공간 ‘논밭예술학교’

도농교류플랫폼 ‘보통직판장’

어린이 생태문화예술 프로그램 ‘쌈지어린농부학교’

쌈지사운드페스티벌

농사펀드 기획단

가장 무책임하지만, 가장 안전한 펀드 “농사펀드”

농부는 불안하다. ‘정말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정말 팔 수 있을까?’ ‘내년에는 대출을 또 얼마나 받아야 할까?’ 한 해 농사는 농부의 밥그릇이 달린 일이다. 농부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예쁘고 탐스러운 결과물을 얻어야한다. 그래서 농부는 농작물에 농약을 치고 땅에 비료를 쏟아 붓는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싶지만, 그렇게 해야 공판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순환은 과연 농부 개인만의 일일까? 아니다. 우리의 일이다. 삼시 세끼 그리고 간식. 우리가 먹는 모든 먹을거리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지으며 생기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소(Risk)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했다. 농촌기획자, 그린디자이너, 크라우드 펀딩사이트 오마이컴퍼니 대표가 힘을 모았다. 함께 농법을 고민하고, 영농자금을 마련해 농부가 별다른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결과물이 바로 ‘농사펀드’이다.

농사펀드는 자신만의 농사 철학을 지닌 농부를 선택하고 투자자에게 나갈 리워드를 농부와 함께 고민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농사펀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국의 투자자들이 일정한 펀딩 금액을 농부를 믿고 과정에 투자한다. 펀딩이 종료되면, 농부는 판매가 확정된 농작물들을 모내기부터 시작하여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가 끝나면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농부와 함께 길러낸 농작물로 받게 된다. 언뜻 보면 농부에게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농부가 농작물을 길러내는 시간과 자연재해, 멧돼지의 습격과 같은 위험요소들을 투자자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농사는 하늘과 땅의 뜻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손바닥은 하얗고 손등은 까맣게 변한 농부의 단단한 손은 소신을 지킨 땅의 숨결을 지닌 손이라는 것이다. 커피 한 잔, 비싼 밥 한 끼 값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자신의 농사철학을 잃지 않고 올바른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농부가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차례이다.

청년공판장@동강

- 사업명: 2014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청년혁신일자리사업
- 사업장: 한국내셔널트러스트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 분야: 도농교류활동가 양성과정
- 프로젝트명: 청년공판장@동강
- 참여인원: 4명 (청년3명+길잡이1명)

■ 소개:

청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습득하고 농촌의 생태순환적 삶과 노동을 통해 청년의 자립능력을 키우며, 일자리와 농촌정착의 디딤돌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청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 활동내용

- 생태농업: 고추, 콩, 옥수수, 감자, 효소 등 생산 및 판매, 모두의 김장 프로젝트, 토종종자 등
- 적정기술: 생태화장실 만들기, 로켓스토브/화목난로/태양건조기 제작, 에너지자립 '작은집짓기'
- 공정여행: 동강트레킹, 어린이 자연놀이캠프, 청소년 비전력캠핑, 안경다리탄광마을 지역자원조사 등
- 공통: 생태인문학, 삶의기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지역자원조사, 목공, 요리, 지역청년교류활동, 마르쉐 참여 등



홍성 (가) 청년농진로 농창업플랫폼 온

우리 지역은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전망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에(땅에) 뿌리내리는 삶’을 오랜 기간 시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방식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는 반면, 동시에 여러가지 단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그룹에서 학교와 보완적, 상호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단기 프로그램방식, 정기 프로그램방식, 진로 베이스 캠프방식, 협업농장 방식 등 여러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2014년도 하반기) 홍동면과 장곡면 일부에서, 현장을 네트워킹하고, 일상과 현장을 플랫폼화하여 청년층의 농(農)진로와 농(農)창업을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농진로와 농창업의 핵심은 지역 현장에서 일을 통한 청년들의 배움(학습)과 성장입니다. 지역을 배경이자 현장으로 일을 경험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 또한 그것이 일터와 현장, 지역사회와 상생적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터 또는 현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는 기존의 현장이나 일터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터 또는 현장 입장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거나, 현장 또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룹을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 우리는 청년들의 지역 살이가 귀농-귀촌이 아닌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프레임은 농(農)적 진로-농(農)적 창업입니다.

* 도농교류가 아닌 도농순환 또는 농도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의 유기성과전체성을 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농순환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지역살이가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사유되고 모색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풀무학교: 1958년도 개교. ‘더불어 살아가는 평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지역 사회와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설된 풀무학교 전공과정이 그 이전에는 풀무학교 고등과정이 청년들의 농적 진로에 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송 창조지역사업단

청송 창조지역사업단은 행정 기관인 청송군,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인 시니어클럽, 유통 회사인 생생농업유통 이 3단체가 협력하여 만든 사업단입니다.

창조지역사업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 및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야기 채집단.

옛 어르신들의 이야기, 귀촌 귀농한 청년들의 이야기등 다양한 청송의 문화, 컨텐츠들을 발굴하고 채집하여 메거진으로 만들어보는 활동

2. 청년 MD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도시의 청년들과 공유하고 직접 농산물 판매를 해보면서 생산물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유통 과정의 문제점들을 알아가는 활동

3. 산채 해설사

청송은 깊은 산지로 이뤄져 있어 다양한 산채가 많이 생산됩니다. 옛 산채를 뜯던 어르신들이 직접 산채 해설사가 되어 옛 이야기, 자세한 산채의 설명, 활용 방법들을 도시민들과 공유합니다.

4. 빈집 해비타트

시골에 살아보고 싶으나 장소, 지인들이 없어 시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직접 폐교의 공간 리모델링에 참여하고, 리모델링 한 공간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특색,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Memo